

01 교회소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

만민하게수련회 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WCDN, 권능의 사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목회자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양순의 지혜

'양순'은 진리 안에서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할 때 성령으로 분별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깊은 선의 차원이다.

03 기획특집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만민!

성령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각종 문제를 해결받고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이들의 자폐증이 호전된 영국 율리아 고렐로바 성도.

04 간증

“권능은 사랑입니다~”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고 참 믿음을 갖게 된 싱가포르 휴웨이엔 박사와 성령의 불이 임해 오른쪽 귀가 열려 듣게 된 조혜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54호 2018년 9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역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적인 권능의 현장에 함께하는 WCDN 의사들



킬롱고 음빌리지 데지레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뉴 라이프 교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는 사역, 최고입니다!”**

“2018 만민하게수련회”는 전 세계에서 참석한 많은 분을 만나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만민의 사역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기에 자연히 만민의 사역과 하계수련회의 은혜로운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와 보니 그 은혜와 감동은 더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 같아 저도 새 힘과 충만함을 얻었지요.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3년간의 당회장님의 이스라엘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셨지요. 이후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교회들이 부흥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십니다. 만일, 당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교회들은 오늘날과 같은 부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은 결코 할 수 없었겠지요.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 지식의 틀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영적 자산으로 작용하는 이들이 있다.

2004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인을 깨우기 위해 설립된 세계 기독교의 사들의 모임인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세계 곳곳에서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해외 연합대성회, 특별 은사집회, 만민하게수련회

등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각종 집회 시 환자 및 간증 접수도 맡고 있다.

“2018 만민하게수련회”를 앞두고 성도들의 사모함이 고조된 가운데 WCDN의 사들은 지난 7월 18일부터 환자 접수를 받았다. 매년 수련회를 통해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국내 지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무려 1,217명이 접수하였다.

8월 6일, 수련회 첫째 날 교육 시에는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후 간증 부스를 찾아 온 성도들의 치료 전후 상태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 치과 등 WCDN 소속 의사들이

파악하며 간증을 접수하였다. 국내만 해도 300건이 넘어섰고,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도 치료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WCDN 회장 채윤석 박사는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불치·난치병이 치료되고, 실명된 사람이 보게 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 등을 대할 때 의사로서 참으로 놀랍고 또 기쁩니다. WCDN은 진화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치료 사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여 책자와 방송, 콘퍼런스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민의 사역이 전해진
‘페루 국제 기독교 콘퍼런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페루 엘 아포센토 알토교회(총회장 알베르토 산타나 목사)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콘퍼런스’에 우리 교회 GCN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가 초청받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04 페루 연합대성회’와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사역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상원의원 겸 기독교TV 대표 보나리코 박사와 코스타리카 전 국회의장 알바라도 박사 등 중남미 인사들이 강연하였다. 김진홍 장로는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토대로 4회에 걸쳐 주제 발표를 했으며, 권능의 사역과 예능위원회의 공연 영상을 상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양순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계명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고 당부하시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유익을 좇아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계명들을 지키며 선을 행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좇아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화평을 좇는 사람은 관용과 양순의 열매를 맺습니다. 관용과 양순은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면서 임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지난 호에 게재한 관용의 지혜에 이어, 이번 호에는 ‘양순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순’의 영적 의미

‘양순’은 영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하면 외적으로도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하다 해서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지요. 영적인 선과 진리로 가득 찬 마음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순의 열매가 맺힌 주의 종이나 일꾼이 상담해 줄 때에는 말에 권세가 따릅니다.

양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의 생각에 맞춰서 상담해 준다 해도 해결되는 것은 그 순간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를 들고 또 찾아오지요. 애써 상담해 주고 심방해도 나중에 보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순의 열매가 맺혀 있으면 상대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명쾌하게 끊어 줄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대화로도 상대의 상태를 분별하여 생각하는 방향 자체를 선하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순’은 단순히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할 때 성령으로 분별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깊은 선의 차원입니다.

2. 깊은 선의 차원, 양순의 세 가지 특징

1)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진리로 문제의 핵심을 분별해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부모의 유산을 공평히 나누도록 자신의 형에게 권면해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후로도 형제간에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 있고, 탐심을 버릴 때야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할 때의 일이 나옵니다.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뜻 모를 글자를 썼습니다. 이때 왕은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심히 놀라고 당황하여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지요.

결국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게 하니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왕의 행동이 문제의 원인을 깨우쳐 주며, 글자의 뜻은 왕의 잘못으로 나라가 메데와 바사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에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영화로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향락을 즐기고 잔치를 벌였지요. 결국 그날 밤 그는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고, 그는 다니엘의 지혜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담받는 것은 좋아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행해 자신부터 변화되고 선한 지혜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2)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족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불편한 기색을 바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안색이 변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지요.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체험할 수 없으며 주변의 인심까지 잃게 됩니다.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빌 4:11~13).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요. 나아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여 행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물론 전혀 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깊은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고 평안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가 진실할 때 반드시 멋지게 응답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롬 8:28).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믿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뜻 안에서 자신이 갈 길을 찾아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양순의 마음으로 범사에 자족하며 선을 좇아 행해 나가면 성령께서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양순의 지혜입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합니다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범사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하여 행합니다. 하나를 명하셔도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둘, 셋 혹은 그 이상을 해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며 매우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한쪽은 진리, 다른 한쪽은 비진리라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진리라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을 택하지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에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만 달라고 부탁하고,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기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채식을 하지요. 결국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물며 다른 분야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더 옳고 선한 쪽을 택하려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결국 왕의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합한 쪽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선한 것을 택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겠다는 담대함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과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평소 선한 행함을 쌓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보일 때 주변의 이해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싶는데 직장의 업무상황이나 휴가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가족 모임과 겹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업무를 충실히 감당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지요. 가족에게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 필요할 때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3. 양순의 마음이 풍성히 임한 사도 바울

1)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전 8:13)는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자연히 우상의 제물로 쓰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 줄 모르고 사먹는 경우가 있어서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먹기 전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았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롬 14장). 단순히 음식으로써 먹는 것일 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꺼림칙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판단 정죄할 수 있지요. 혹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나도 괜

찮겠지’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설령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는 것이지요.

2) 자신이 마땅히 쓸 권리를 쓰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지 않고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였지요. 원칙적으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성도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일해서 쓸 것을 마련했지요. 그가 이렇게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여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도들보다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밝은 영감과 지혜도 더하셨기에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로써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지요. 또 큰 권능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순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면 항상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혹은 누가 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가득한 선이 말과 행함 가운데 저절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더욱 양순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범사에 본이 되어야 하기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 해도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합한 것인가?’ 겸비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 나갈 때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나아가 사심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까지도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는 양순의 지혜를 받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하계수련회에 가면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율리아 고렐로바 성도 (42세, 영국)

2008년 TBN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뒤, 저희 가족은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2011년 당시 이민 후 4년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막막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영주권이 곧바로 나오는 신기한 체험도 했지요. 2013년부터는 매년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2016년 만민하계수련회 시에는 첫째 아들의 자폐증이 호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치고 소리를 지르며 자주 화를 냈습니다. 부모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주변 환

경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지요. 마치 동물과 같이 소리만 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전체기도를 받은 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저와 남편의 말에도 반응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면 닫고, 비가 오니 “비!”라고 표현하며, 무슨 음식인지 구분해 말까지 했지요. 2017년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기도받은 뒤에는 허리벨트를 혼자 차고 아빠, 엄마를 부르며 자기 표현도 하는 등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들이 너무나 많이 호전되어 2018년에는 둘째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만민하계수련회, 올해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URIM BOOKS



지혜
이재록 목사 자기계명서

최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코칭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성결,
참된 지혜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Wisdom



“권능은 제가 본 생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휴웨이엔 박사 (34세, 싱가포르만민교회)



싱가포르에서 가정의학 전문으로 일하는 저는 하나님 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후 세계 존재 여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가장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살았기에 예민하여 화를 아주 잘 냈습니다.

어느 날 해외여행 중에 머문 호텔 방 테이블에 놓인 성경을 보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등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제가 믿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크리스천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지요. 한 친구는 “그냥 먼저 믿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쭙봐”라고 했습니다.

*

그러던 2016년 8월, 친구 데이빗 유 박사가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사역과 의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황핑핑 선교사(싱가포르만민교회 담임)

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건네주었지요. 그 책은 아주 쇼킹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목도한 후에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제가 본 생애 최고의 은혜였지요. 마치 2천여 년 전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성경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회장님은 우리 모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며, 만민교회는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

사실 저는 의사로서 때론 환자를 돕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나 기회가 될 때마다 WCDN에서 입증한 권능의 기도로 치료된 간증들을 전해 주며, “희망을 잃지 마

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WCDN은 의학 자료에 근거해 믿음의 기도로 역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치유 사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의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가 인지해 환자를 돕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요. 당회장님을 통한 권능의 역사에 의사로서 더욱 감동됩니다. 피부병으로부터 신경계, 호흡계, 심장혈관계, 위장계, 중풍, 소경, 귀머거리, 자가면역질환, 암 말기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2018년 8월 초, 저는 작년에 이어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많은 이가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폭염 가운데에도 수련회장은 최적의 날씨로 역사해 주시는 기사(奇事)를 체험하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천국 소망이 넘치며 아주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삶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저도 오른쪽 귀가 열렸어요!”

조혜진 집사 (49세, 1대대 5교구)

음을 전함으로 2010년에는 폐낭농아만민교회가 창립되어 담임을 맡게 된 후 태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농아들에게 만민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

수많은 성도가 당회장님의 기도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특히 남편을 비롯한 농아 성도들이 듣게 된 간증을 대할 때면 부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12월, 오른쪽 귀에서 이명 증세가 나타나 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였지요. 만민하게수련회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도 귀가 열려 남편을 도와 수화통역으로 농아 성도

들을 섬기고 싶어 기도하며 금식으로 준비했지요.

드디어 수련회 첫날 교육 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단 아래에서는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이 제게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서 귀에서 ‘핑’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음날 캠프파이어 때는 보청기도 끼지 않았는데 제 오른쪽 귀에서 찬양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리곤 하지요.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 청력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이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명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840-2906,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D ☎031)905-2419, 010-2352-8336